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IBKS Spot Comment

IT/디스플레이

강민구

02) 6915-5473
kmg@ibks.com

[IT/디스플레이]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은 접힐까, 열릴까?

스마트폰 시장의 역성장: 애플의 폴더블 iPhone 출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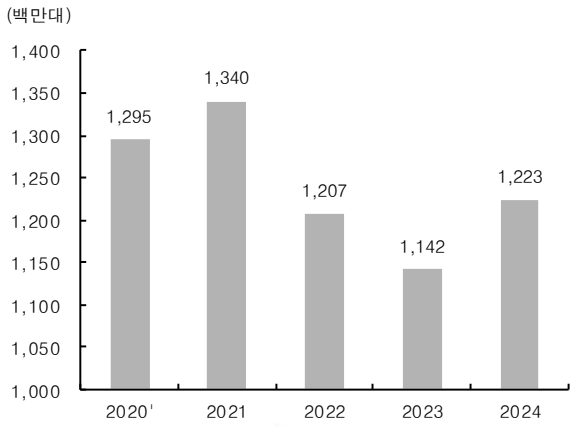
2026년 하반기 중 폴더블 iPhone의 출시를 예상한다. 2019년부터 애플이 폴더블 스마트폰을 출시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존재했지만, 줄곧 무산되었다. 애플이 2026년에 새로운 폼팩터를 출시하려고 하는 이유는 정체된 스마트폰 사업 때문이다.

스마트폰 시장은 성숙기에 접어들며 성장률이 정체되었다.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연간 12억 대, 분기별 3억 대 수준이다. 2017년 출하량 15억 대를 기록한 이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025년 역시 소비심리 위축으로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애플에게 점유율 하락은 더욱 큰 고민거리이다. 1st-Tier 스마트폰 브랜드인 애플과 삼성전자 합산 점유율은 2024년 36.7%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3.9%p 감소했다. 삼성전자는 3.2%p 감소했고, 애플은 0.7%p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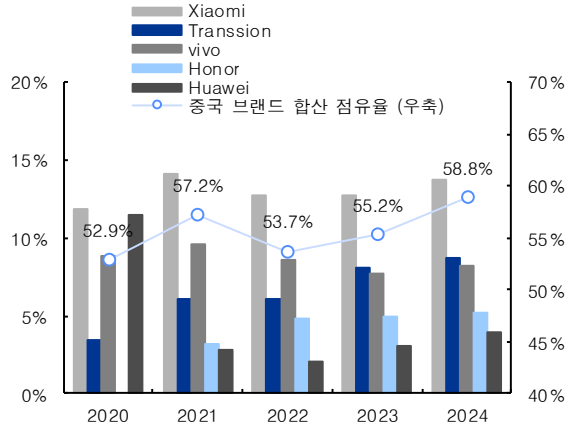
1st-Tier 브랜드와 달리 중국 브랜드의 점유율은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2024년 기준 중국 스마트폰 브랜드의 글로벌 점유율은 58.8%로 팬데믹 이후 성장이 본격화되었다. 2020~2024년 1st-Tier 브랜드(삼성전자, 애플)의 합산 점유율 증가폭은 0.7%p에 불과했지만, 중국 브랜드 합산 점유율은 6.0%p 증가했다.

그림 1. Global 스마트폰 출하대수 추이



자료: Omdia, IBK투자증권

그림 2. 중국 스마트폰 브랜드 점유율 추이



자료: Omdia, IBK투자증권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리서치본부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해 최종 결정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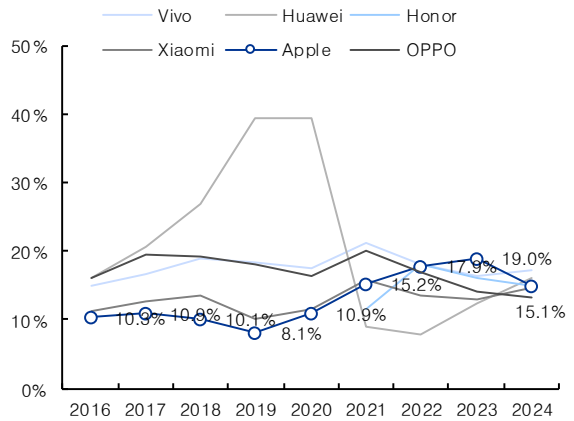
중국 시장에서 애플의 점유율 하락은 더욱 가파르다. 팬데믹 이후 중국 소비자의 플래그십 선호가 증가함에 따라 애플 점유율이 상승했다. 애플의 2023년 중국 시장 점유율은 19%를 기록하며 1위에 등극했지만, 2024년에는 점유율이 3.9%p 감소해 5위로 하락했다.

주목할 점은 중국의 플래그십 선호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iPhone의 점유율이 하락했다는 것이다. 2024년 5,000위안(약 100만원) 이상 스마트폰의 점유율은 26.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iPhone 점유율은 3.9%p 하락해 플래그십 시장 지배력이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애플은 폴더블 iPhone의 출시를 통해 Q(점유율)의 하락을 P(판가)의 상승으로 만회할 것이다. 2026년 하반기 중 출시될 폴더블 iPhone의 가격은 $2,000~2,500(290~362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폴더블 스마트폰은 플래그십을 뛰어넘는 판가 책정이 가능하다. Flexible 패널의 가격이 높고, 복잡한 구조와 고기능성 소재 부품의 탑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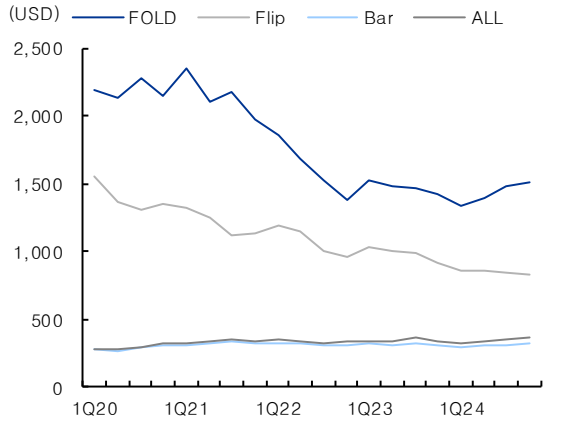
Bar – 폴더블 폼팩터 간 가격 스프레드는 지속될 것이다. 폴더블 스마트폰 상용화가 시작되었던 2020년 가격은 전체 스마트폰 평균 판매 가격 대비 7.4배 수준이었다. Bar 형 플래그십 모델에 OLED가 탑재되며 판가가 상승했음에도 여전히 4배 이상의 가격 차가 존재한다. ASP 상승을 위해서는 폴더블 모델이 필수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 중국 스마트폰 시장 브랜드별 점유율 추이



자료: Omdia, IBK투자증권

그림 4. 스마트폰 폼팩터별 ASP 추이



자료: Omdia, IBK투자증권

우려 1: 폴더블 iPhone 출시 지연

결론적으로 폴더블 iPhone의 출시 지연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금년 2분기 중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폴더블 iPhone의 공급사 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출시 연기 우려감이 증가했다. 공급망 구축이 지연된 이유는 1) 애플의 첫번째 폴더블 폼팩터라는 점, 2) 3분기 공개되는 Bar 타입 iPhone과의 차별화를 위한 출시 시기 조정 등으로 판단한다.

폴더블 iPhone은 사치재에 가까운 제품으로 애플은 예상치 못한 시점에 제품을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 애플은 전통적으로 iPad, Macbook 등의 사치성 제품은 비정기적으로 출시하고, iPhone은 정기적으로 출시는 경향성을 보인다. 당사는 폴더블 iPhone 역시 판매 극대화를 위한 3분기 말~4분기 초 출시 가능성을 높게 판단한다.

또한, 삼성디스플레이가 폴더블 iPhone 전용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도 지연 가능성을 낮추는 이유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아산에 위치한 6G A3 Fab에 35K/월 규모의 폴더블 iPhone 전용 라인 구축을 시작했다. 지난 2021년 애플이 삼성디스플레이에게 MoQ(Minimum of Quantity) 보상금 8,000억원을 지급했던 사례를 고려하면, 전용 라인 구축 배경에도 최소 수량 보장 규정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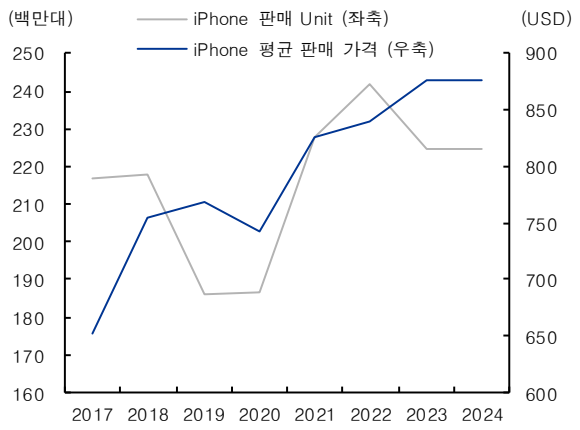
우려 2: 폴더블 iPhone 수요

폴더블 iPhone의 견조한 수요를 전망한다. 높은 판가가 예상되는 만큼 판매 부진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지만, 당사는 1) 브랜드 파워, 2) 낮은 폴더블 침투율, 3) 하드웨어 차별화 등을 근거로 800~1,000만대 수준의 출하를 전망한다.

애플은 글로벌 최대 Set 업체로서 주요 제품의 판가 인상과 판매량 증가를 달성해왔다. iPhone, Mac, iPad, Wearable 제품 모두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높은 판가가 예상되는 폴더블 iPhone의 흥행이 기대되는 이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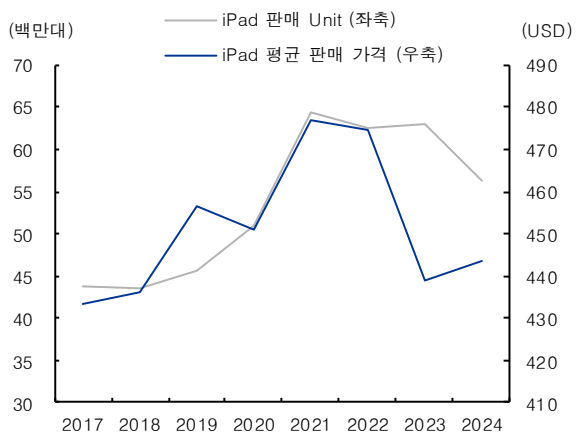
사치재 특성을 띄는 IT 제품은 고객 충성도가 판매량에 직결된다. 폴더블 iPhone은 일반형 스마트폰 대비 가격이 비싸고, 소형 Tablet PC와 크기가 유사해 iPhone 시리즈 중 가장 탄력적인 소비 행태가 예상된다. 또한, 프리미엄화를 표방하는 애플의 첫 폴더블 제품인 만큼 시장의 높은 호응이 예상된다.

그림 5. 연도별 iPhone 가격 및 판매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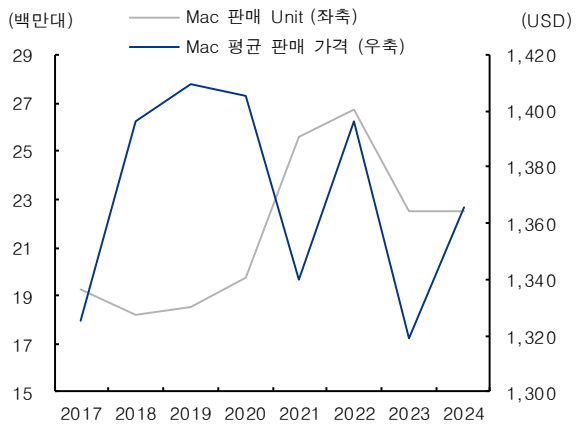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그림 6. 연도별 iPad 가격 및 판매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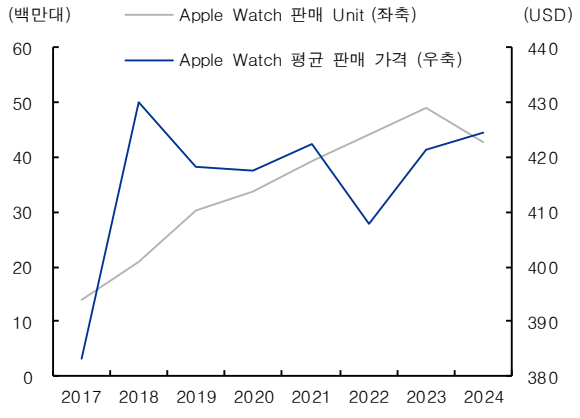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그림 7. 연도별 Mac 가격 및 판매량 추이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그림 8. 연도별 Watch 가격 및 판매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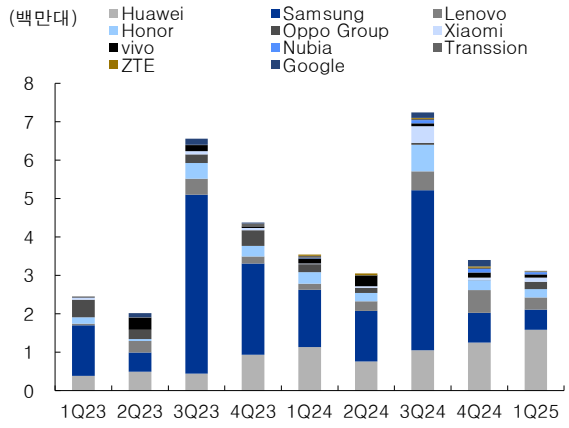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애플은 신모델 출시 직후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의 지배적인 사업자로 등극할 가능성이 높다. 폴더블 스마트폰 소비자들은 폼팩터에 Lock-in 되어있지만, 브랜드 충성도는 약하기 때문이다. 애플은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를 기반으로 고정적인 수요층을 흡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낮은 폴더블 폼팩터 침투율도 애플에게는 긍정적인 요소이다. 2024년 폴더블 스마트폰 판매량은 1,700만 대 수준이며, 전체 스마트폰 시장 대비 1.4%에 불과하다. 상용화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침투율은 여전히 한 자리 대에 머물러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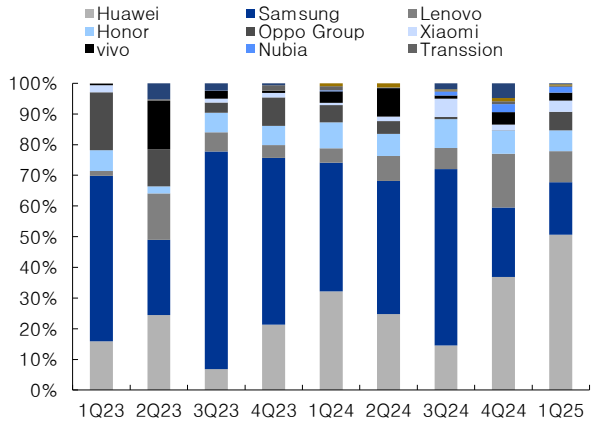
삼성전자 폴더블 스마트폰 판매량은 2022년 960만 대를 기록했으나, 2024년에는 770만 대 수준으로 감소했다. 반면, 2021년 Huawei의 폴더블 모델 판매량은 100만 대 미만이었지만, 2024년 420만 대까지 상승해 2위 사업자로 성장했다. 최근 5년간 Huawei는 모든 브랜드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그림 9. 브랜드별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



자료: Omdia, IBK투자증권

그림 10. 브랜드별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 점유율



자료: Omdia, IBK투자증권

기대 1: 폴더블 iPhone 패널 공급사는 SD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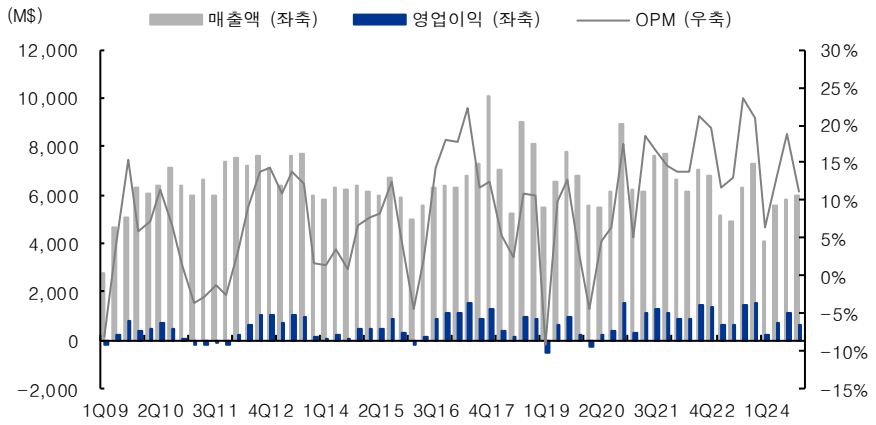
폴더블 iPhone의 패널은 삼성디스플레이가 독점 공급할 것으로 예상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일정 기간 폴더블 iPhone용 패널의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폴더블 스마트폰의 높은 가격을 고려한다면, 삼성디스플레이는 Galaxy S Ultra 혹은 Z 시리즈와 비슷한 규모의 신규 수요를 확보한 셈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폴더블 iPhone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용 라인을 구축을 시작했다. 전용 라인은 아산에 위치한 6세대 A3 Fab에서 35K/월 규모로 구축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폴더블 iPhone 8.1 inch 기준 Capa는 연간 1,500만대 수준이 예상된다.

삼성디스플레이를 제외한 글로벌 패널사의 수익성은 악화되는 중이다. 삼성디스플레이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15.8% 수준을 기록한 반면, LG디스플레이는 최근 3년 영업적자르 이어오고 있으며, BOE는 2022~23년 적자를 기록한 이후 작년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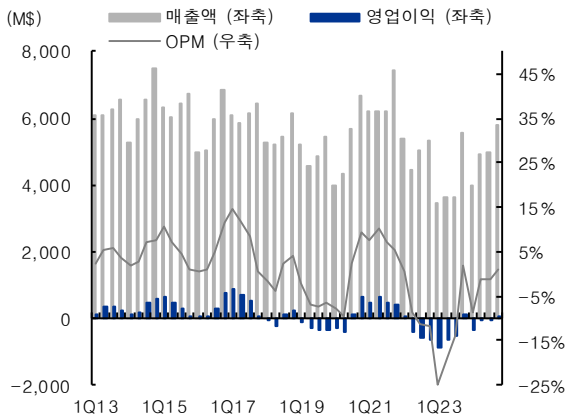
패널사별 차별화된 이익률 수준의 원인은 애플 내 OLED 점유율의 격차 때문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14년 발 빠르게 6세대 공장 증설에 나섰고, iPhone X 시리즈 납품에 성공했다. 빠른 증설과 높은 수율은 애플 내 높은 점유율로 이어졌고, 장기간 수익성으로 연결되었다. 삼성디스플레이의 폴더블 iPhone 초기 물량 독점 역시 장기간의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그림 11. 삼성디스플레이 분기별 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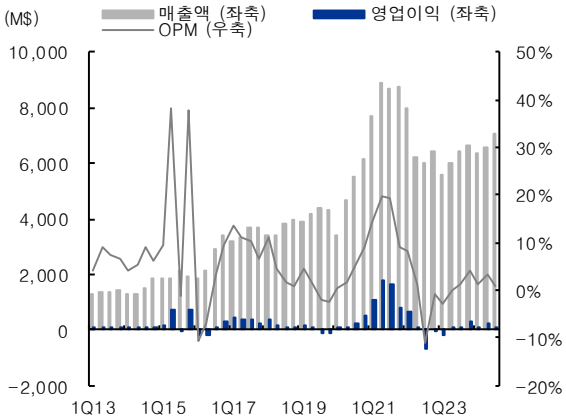
자료: Omdia, IBK투자증권

그림 12. LG디스플레이 분기별 실적 추이



자료: Omdia, IBK투자증권

그림 13. BOE 분기별 실적 추이



자료: Omdia, IBK투자증권

기대 2: 국내 소부장의 폴더블 iPhone 밸류체인 합류

결론적으로 초기 폴더블 iPhone에서는 국내 소부장 기업이 상당한 비중의 물량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 이유는 2019년 삼성전자가 폴더블 스마트폰을 최초 상용화하면서 국내 소부장 기업 역시 기술력과 양산 경험이 장기간 축적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국 및 대만 기업의 공급 비중은 점차 증가할 것이다. 애플은 삼성디스플레이 및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삼성디스플레이가 폴더블 iPhone용 패널을 독점 공급한다는 점에서 공급사 이원화는 필연적으로 판단한다.

표 1. 스마트폰 브랜드별 폴더블 폼팩터 출시 시기

구분	모델 시리즈	첫 출시시기	폴더블 형태	패널 제조사
삼성전자	Galaxy Z Fold, Galaxy Z Flip	2019년	Dual Display	SDC
Huawei	Mate X, Pocket	2019년	Dual Display	BOE, Visionox
Google	Pixel Fold	2023년	Dual Display	SDC, BOE
OPPO	Find N	2021년	Dual Display	SDC, BOE
Xiaomi	Mi Mix Fold	2021년	Dual Display	CSOT
Vivo	X Fold	2022년	Dual Display	BOE
Honor	Magic V	2022년	Dual Display	BOE, Visionox
Apple	-	2026년 예상	-	-

자료: 도우인시스, IBK투자증권

소부장 기업들은 지난 6월 P1(Prototype) 납품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토타입 제작은 P1~3까지 진행되며 단계별로 약 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프로토타입 납품은 양산 1년 전 시작된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폴더블 밸류체인 구성도 연내 완료될 것으로 판단한다.

폴더블 iPhone의 핵심 부품은 Flexible OLED 패널, UTG를 비롯한 커버 글라스, 외장 및 내장 힌지이다. 패널은 알려진 바와 같이 삼성디스플레이에서 독점 공급하며, OLED 소재를 납품하는 덕산네오룩스의 수혜가 전망된다. 특히, 폴더블 iphone에는 CoE(ColorFilter on Encapsulation) 기술 적용으로 블랙 PDL 매출 확대를 기대한다.

커버 글라스 소재로는 UTG가 선택될 것으로 예상한다. CPI 대비 광택감 및 내구성이 뛰어나 플래그십 폴더블 스마트폰의 보편적 솔루션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공급업체로는 Lens Technology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나, 양산 경험 및 기술력을 고려한다면 국내 UTG 기업인 도우인시스의 합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다. 주름 개선을 위해 두 장의 UTG 적용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타 부품 대비 공급사의 물량 증가 기대감이 가장 높다.

표 2. 폴더블 iPhone 공급망 예상

구성요소	공급사
패널	삼성디스플레이(韓)
Black PDL	**덕산네오룩스(韓)**
UTG	Lens Technology(中), **도우인시스(韓)**, 유티아이(韓)
필름	삼성SDI(韓), 3M(韓), Nitto Denko(日), Lens Technology(中), 세경하이테크(韓)
FPCB	비에이치(韓), 에스아이플렉스(韓)
외장힌지	Amphenol(美), shin zu shing(臺)
내장힌지	**파인엠텍(韓)**, Lingyi iTech(中)

자료: 언론보도, IB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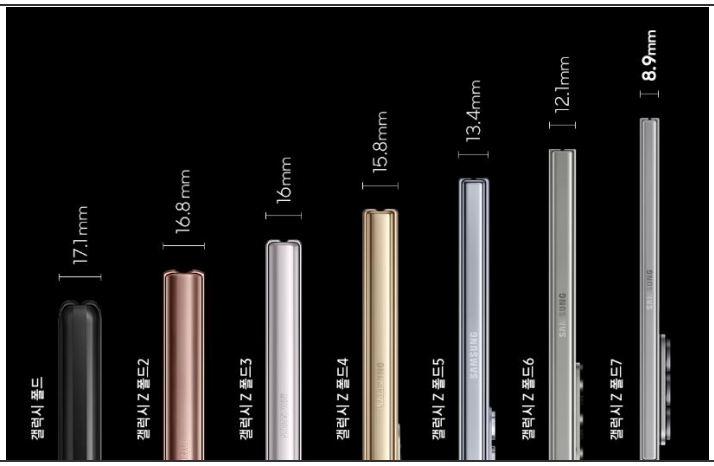
결론 : 카니발라이제이션 기반 시장 확대 전망

폴더블 스마트폰은 신규 시장 창출이 아닌 기존 스마트폰 시장을 침식하며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1인당 스마트폰 소유 대수는 고정적이고, 국내 기준 스마트폰 보급률은 97% 수준으로 신규 소비자의 유입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드웨어 측면에서도 Bar 타입 대비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개선되고 있다. 지난 9일 공개한 Galaxy Z Fold 7의 경우 Bar 타입 스마트폰 수준의 두께를 구현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해당 모델은 8.9mm 수준의 두께를 선보이며, S 25 Ultra와 단 0.7mm 차를 기록했다. 폴더블 스마트폰의 고질적인 문제인 화면 주름 역시 도우인시스가 독점 공급한 45㎛ 두께의 UTG를 적용해 개선했다.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밸류체인 합류가 기대되는 소부장 업체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국내 폴더블 밸류체인은 삼성전자의 Fold와 Flip 모델을 중심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출하 대수의 급격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폴더블 iPhone 출하량의 경우 삼성전자의 Fold와 Flip 모델 합산 출하량 이상이 기대되기 때문에 밸류체인 합류 시 큰 폭의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그림 14. Galaxy Z Fold 세대별 두께 변화



자료: 삼성전자, IBK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는 조사분석자료 작성에 참여한 외부인(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등)이 없습니다.
조사분석 담당자 및 배우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